

강온파간 대립설... 협상전술 가능성도

현장과 시각

정책 없이는 정권도 없다



정 후식

정치부 차장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5월 29일 광주 정책토론회에서 강제섭 대표 표는 "역사상 최초의 정책 경쟁을 한나라당이 선보 이겠다"며 의미있는 화두를 던졌다. "정책이 없으면 정권도 없다(若無政策是無政權)"는 다짐이 그것이다. 정치인들이 호남에 다가서려 할 때 자주 인용하는 충무공의 표현까지 빌어 정책 선거를 약속했기에 지역민들의 기대는 자못 컸다.

당내 경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호남 공약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유권자들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에게 보내준 전례 없는 성원에 비하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난 5일 '광주·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영산강을 살리고 광주와 나주에 내륙항을 만들어 산업과 물류가 새로 일어나는 신산업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영산강의 기적'을 약속했다. 그는 또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축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한반도 선벨트(SUNBELT) 구상'을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이날 "대전~광주~대구로 이어지는 3각 테크노벨트를 구축하고 이 3개 지구를 BEST(교육·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광주는 문화산업의 메카이자 자동차부품·전선로봇·광산업 등 3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남은 세계적 해양관광지이자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양대 후보가 이날 제시한 공약 중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다. 공약들은 대부분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하에서 이미 진행 중인 지역개발사업이나 광주·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짜집기하거나 베끼는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 탈레반 잇단 인질 석방 혼선 배경 뭘까 협상 상황 복잡해질 가능성 높아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인질을 억류 중인 탈레반 세력이 11일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질 석방을 둘러싼 탈레반의 혼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탈레반 세력은 이미 지난달 26일에도 인질 8명을 석방하려 했다가 이를 번복하고 강경으로 되돌아간 적이 있어 지도부 내부에서 강온파간 대립에 따른 혼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인질 2명의 석방 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실제 석방이 이뤄지기까지 지켜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점도 이같은 혼선 배경에 따른 협상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 내부 강온 대립 따른 혼선=탈레반 지도부 내부의 혼선은 인질 석방이 알려진 뒤 이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두차례에 걸쳐 이뤄진 연합뉴스와의 간접통화에서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미다는 처음에는 인질 석방 계획이 취소됐다고 밝혔다가 다시 "여성 인질 2명을 선(先) 석방한다는 기본 결정은 바뀌지 않았지만 석방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같은 입장 번복은 우선 지도자위원회의 결정과 인질을 실제 억류한 조직 간의 이견으로 인한 혼선의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아프간 소식통은 "중중 지역 탈레반 조직이 지도자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인

질을 억류한 지역조직의 반발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미다는 전날에도 인질 2명을 아프간 내 적신월사에 넘겼다고 말했다가 다시 석방 계획이 있다고 말을 바꿔 내부 입장 차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탈레반 지도부 내부의 혼선이 잇따라 부각됨에 따라 아프간 정부와 미국, 한국정부가 얽힌 협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8명의 인질 석방 보도가 나온 시점 이후 아랍계 알자지라 방송의 4명 인질 석방 합의 등 보도가 이어졌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탈레반측 협상전술 가능성=일부 인질석방 보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미국과 아프간 정부의 수감자 석방 불가라는 강경 방침 고수에 대응해 협상국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탈레반 세력의 협상전술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협상시한 연장과 일부 인질 살해 등으로 이 문제를 국제문제화하는데 성공했던 탈레반이 한국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긴장감을 더욱 높이고 특히 협상국면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내부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추지게 했다는 설명이다.

그간의 인질석방 보도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밖에 아픈 여성인질 2명이 석방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자신들만이 아닌 인질 전체를 원하면서 탈레반의 결정에 응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11일 오전(현지시간) 한국 정부와 탈레반간에 대면협상이 열린 가즈니주 가즈니시에서 탈레반측 협상대표 2명이 협상 전망을 기자들에게 발표하고 있다. 왼쪽 검은 터번을 쓴 이가 몰라 바시르, 오른쪽 하얀 터번을 쓴 이가 몰라 나스롤라.

이슬람권 신뢰... '대면접촉' 중재 성과

주목되는 '적신월사' 역할

"적신월사(赤新月社·이슬람권 적십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일 오후 늦게부터 시작된 한국측과 탈레반간 대면접촉은 적신월사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통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첫 접촉 성사 전부터 '대면접촉'의 필요성에 공감한 뒤 구체적인 접촉형식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측이 적신월사의 중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신월사의 중재를 선택한 것은 이슬람권에서 존중받는 비정부기구(NGO)

의 대표적 기구라는 점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한 당국자는 "적신월사에 대한 이슬람권인들의 이해와 존중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적신월사가 개입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적으로 '테러리스트'와 직접 협상한다는 인상을 가급적 차단하려는 한국측이다. 아프간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탈레반으로서는 적신월사의 개입이 서로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접촉장소를 놓고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가즈니 지역의 적신월사

건물에서 하지는 방안이 나오자 한국측은 물론 탈레반측도 수용의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오후 진행된 첫 접촉은 붉은 초승달 상징이 크게 그려진 적신월사에서 진행됐으며 이 장면은 현지로 안다"고 말했다.

다소 혼란을 겪고 있지만 탈레반이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하겠다고 신신장한 적신월사에 넘기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질석방을 위한 교섭은 물론 그 결과로 인질들이 석방될 경우에도 적신월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한국 '혼혈'문제 거론

'2명 석방' 혼선에 가족들도 혼란

12일 새벽 탈레반이 한국 여성 인질 2명을 석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기대감을 가졌던 피랍자 가족들은 이날 낮 다시 '석방이 취소됐다'는 잇달린 보도가 나오자 일단 정부의 공식 확인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들은 이날 새벽 탈레반이 아픈 한국 여성 인질 2명을 풀어주기로 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자 "정부의 공식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안도하며 고무된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낮 12시에 '석방이 취소됐다'는

상반된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어느 것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가족들은 일단 정부의 공식 확인이 있을 때까지 '일회일비'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가족모임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여성인질의 석방 여부를 확인중'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며 "가족들이 워낙 이란 일을 많이 겪어서 크게 동요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픈 2명의 신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은 외교부로부터 언질을 받거나 누구인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위원장 레지 드 구데)가 우리 정부의 통합 이행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난 9~10일 이틀간 진행된 심사에서 우리나라의 '혼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국 보고서 담당 특별보고관인 안와르 케말 위원을 비롯한 몇몇 위원들은 한국 문화의 '순수한 혈통' 개념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에 정부 대표단은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 이해를 시키려고 애썼다. 한 위원은 "그 개념은 일부 사람들이 '불

순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게 된다"며 "그 결과 그 개념은 인종차별 철폐협약이 없애고자 하는 인종의 우월성이라는 관념에 매우 다가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차별적 의미가 담긴 '혼혈'이라는 용어의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뒤 한국은 20세기 초엽에 일제의 침략에 직면해 '단일한 아리엔티카'를 구축했으며, 해방이후 한국 민족의 통일은 당연하게 여겨졌다고 설명

했다.

정부 대표단의 이런 답변에 대해 한 위원은 "고정된 아이덴티티의 위험성을 지적한 뒤, 한국은 다른 민족성을 지닌 사람들의 긍정적 기여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이혼시 외국인 여성 배우자의 지위, 지난 2월 여수 출입국 관리사무소 화재 사건, 한국내 중국인 귀화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파고 들었다.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 모집과정
 - ▶ 공인중개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8일
 - ▶ 주택관리사 12개월~5회 시험일: 10월21일
 - ▶ 주택관리사 2차(회계·법률) 주말반(토)일 시험일: 10월21일
- 모집대상
 - ▶ 혼연중 또는 혼연후 1월 이내에 이혼신청 예정인 분
 - ▶ 성씨 군로자수가 30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신 분 40세 이상 이신 분
 -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신 분 단:사.군.교.사. 파.전.교.사. 일.용.교.사
- 7기타사항
 -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 수료료 100~80% 환급
- 접 수
 - ▶ 수강절차: 혼연상담→혼연수강신청서 작성→혼연기면에 제출→수강
- -입 류 티 교 정-
- 모집과정
 - ▶ 정보화(초)과정 원도우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파워포인트, 워드, 유틸리티활용
 - ▶ 정보화(중)과정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 모집대상
 -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재직근로자
- 7기타사항
 - ▶ 수료료 100% 환급
- 접 수
 - ▶ 수강절차: 혼연상담→혼연수강신청서 작성→혼연기면에 제출→수강
- 수업시간
 - ▶ 월요일 19:00~21:00(7회) ▶ 화요일 19:00~21:00(7회)

●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 직업 전문 학교
동부강습서원 ☎224-4560, 232-1088

특보:세무공무원 3000명 모집, 합격의 절호의 기회!!

7-9 급 공무원 대특강

일제무직 2700명 (1차:9월6일 시험(1200명 모집) (사상초우) (대모집)
(2차:11월초(1500명 모집 예정))

全 7-9급 일반 행정직 216명 10월 13일 시험 개강 8월 16일
南 9급 교육 행정직 000명 올 하반기 시험 주야반모집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 多 란 말을 듣고 있다. =

시험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중간고고 후문) ☎ 222-4560
www.mdgoal.com.kr

www.kimyoung.co.kr
그동안 김영출선생 12만여명 합격

왕선 사자, 왕서가는 힘! 상위권 대학도 역시!
김영선생 대학특입

여름방학 편입 대특강 개강 8월 1일
올해도 역시! 거침없는 합격률!!

경희대(사) 178명 합격, 고려대(인) 228명 합격, 서울대 104명 합격, 삼남대(의) 270명 합격, 중앙대 203명 합격, 한국대 202명 합격, 한양대 205명 합격, 동아대(사) 410명 합격, 연세대 370명 합격

역시! 김영! 중앙대 102명 중 67명, 한양대 165명 중 137명

김영면임.PMS학원 (광주동부강습서원) ☎ 227-8088

www.hanilexpress.co.kr

즐거움 제주여행은 2시간만에 운항하는 초고속 크루즈 여객선

한일카-웨리호로!

HANILEXPRESS 출항시간

한일카-웨리 1호
08:20 제주출항/제주월요일휴항
15:30 원도출항/원도월요일휴항

한일카-웨리 2호
17:00 제주출항/제주월요일휴항
12:00 원도출항/원도월요일휴항

원도→광주 무료 셔틀버스운행

(주)한일고속 한일카-웨리호예약

- ◆ 여객예약: 061)554-8000 (http://www.hanilexpress.co.kr)
- ◆ 차량예약: 061)554-0045
- ◆ 과장강역순: 011-673-7696
- ◆ 일반회콜: 061)554-3265